

# 구구조 문법 기반 한국어 파싱: 규칙성과 불규칙성의 구별을 중심으로

이효은, 계은진, 최재원, 안민경, 김경희, 임은숙, 채희락  
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

## 서론

### ▶ 관용표현/숙어의 불규칙성

- 1)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하지 않는다.
- 2) 통사적 행동이 규칙-불규칙으로 다양하다.



### ▶ 기존 연구의 한계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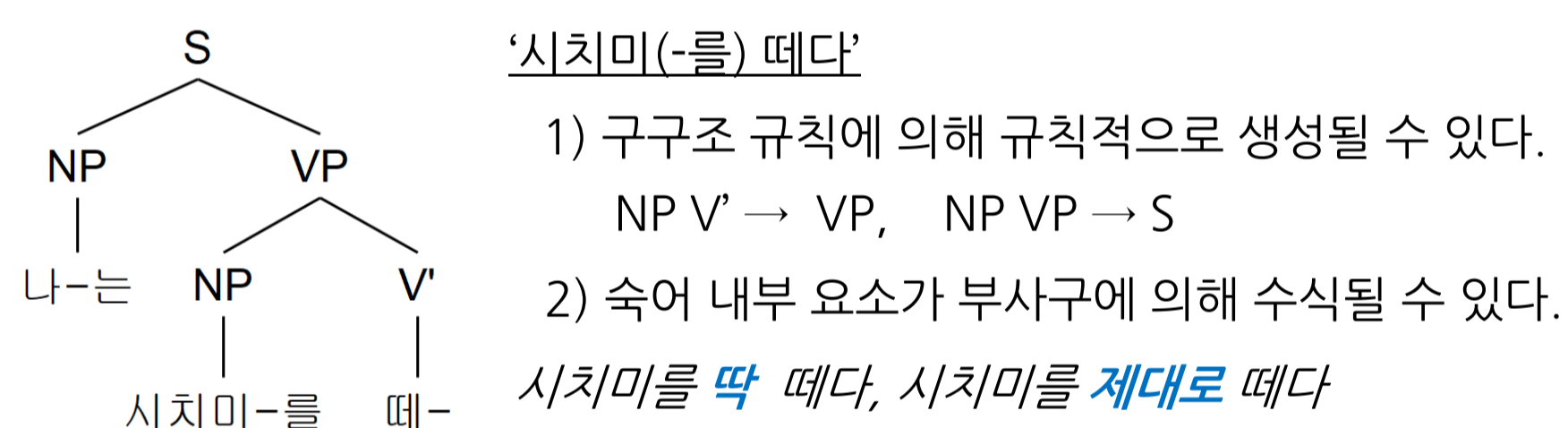
- 의존 문법에 기반하여 관련 요소를 묶거나 통사적 제약을 부여하였다.
- 이 방법은 규칙적인 문장 분석에서는 효과적이지만, 관용표현/숙어 등을 포함하는 문장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의 오류율이 높아진다는 한계가 있다.

## 연구 목적

- ▶ 관용표현이나 숙어와 같이 불규칙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문장을 합리적으로 구문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.

## 숙어의 규칙성과 불규칙성

### ▶ 숙어의 형태·통사적 규칙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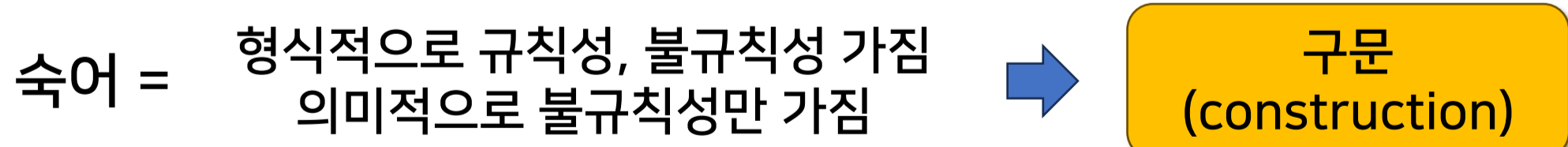


### ▶ 숙어의 불규칙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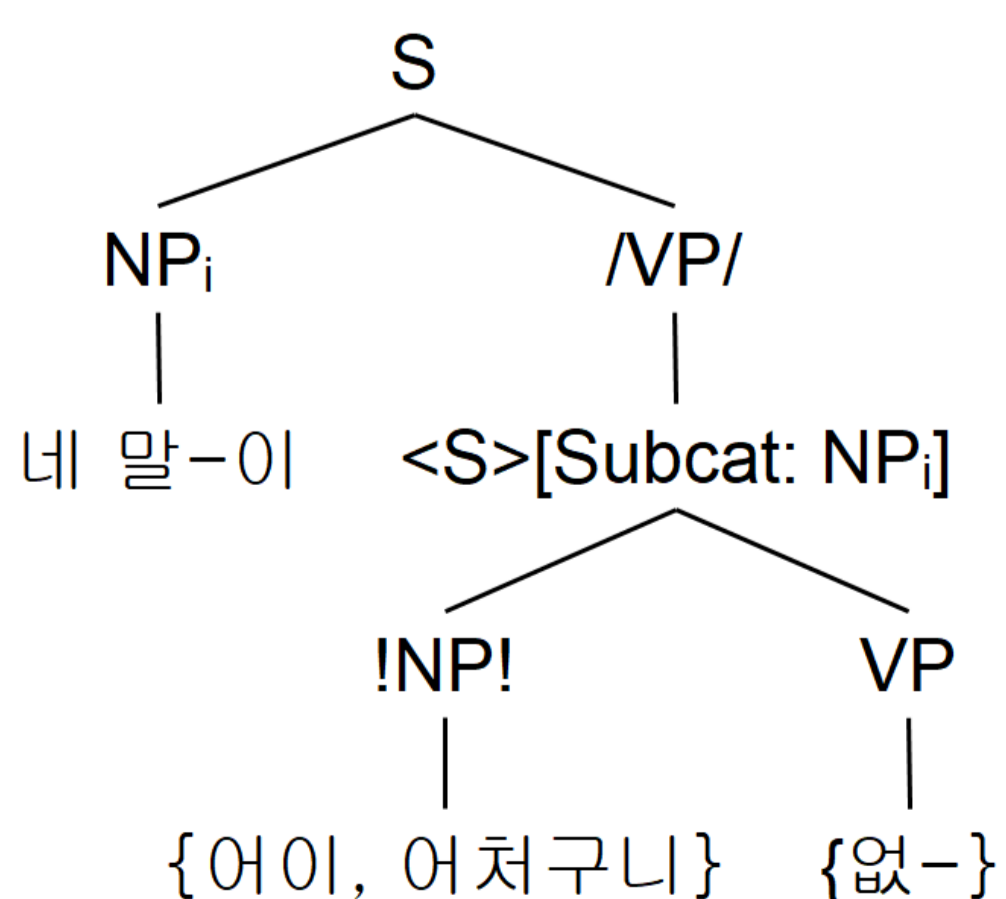
특성	분야	일반 구	숙어
1) 내부적 확장성 <i>목소리 → 큰/작은 목소리</i>	형태·통사	가능	제한적
2) 구 외부로의 이동 <i>어제 집에 갔다 → 어제 간 집</i>		제약 X	제약 O
3) 어휘 대체 <i>방이 밝다 → 방이 환하다</i>		가능	제한적
4) 합성성의 원리 <i>키 + 크다 = 키가 크다</i>	의미	준수	준수 X

### ▶ 숙어의 표상 체계(representation system)

- 숙어의 형식적인 규칙성, 불규칙성을 모두 포착할 수 있는 분석 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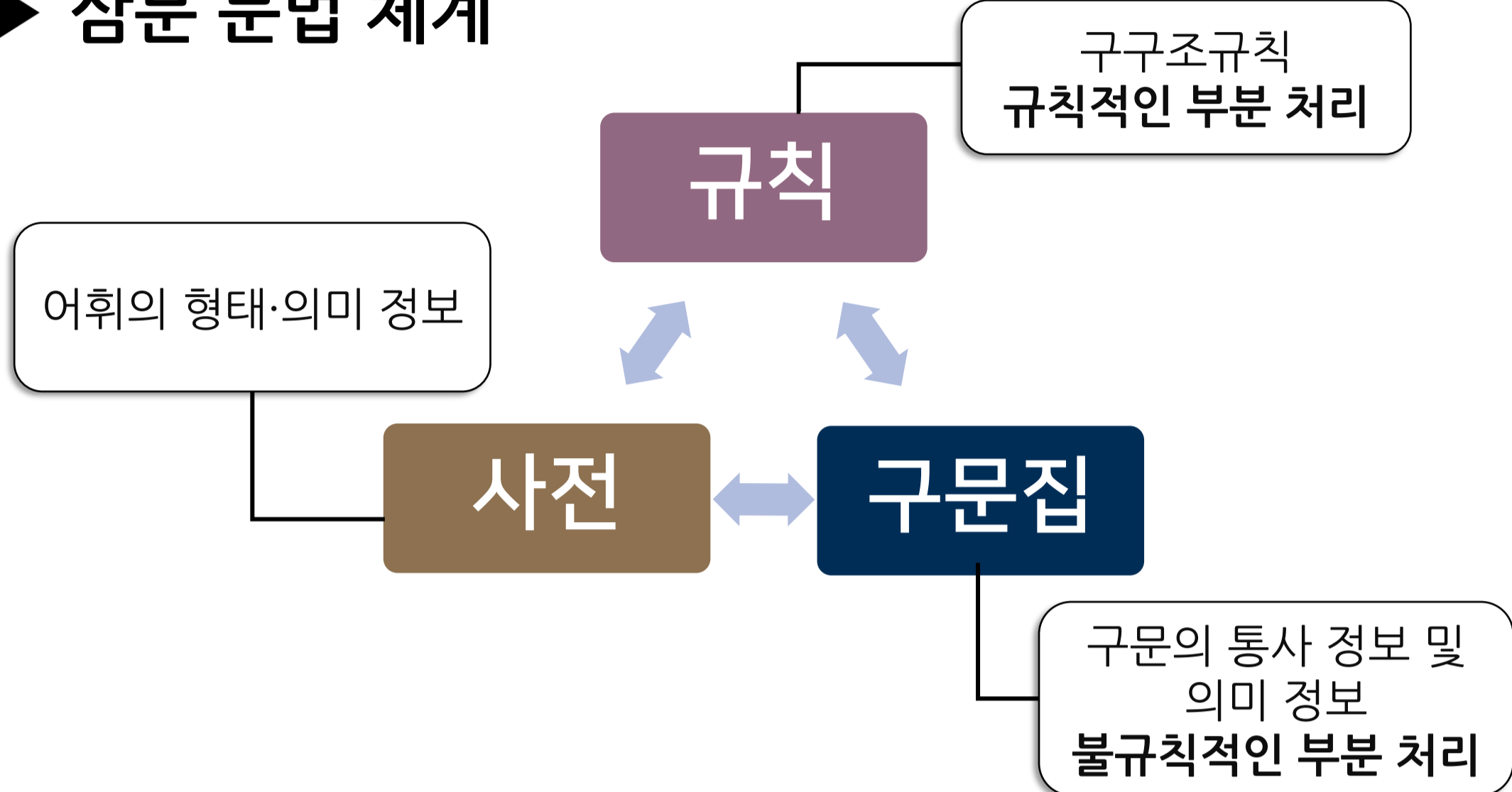


- 가. <<XP>>: XP 내부 요소 이동 불가  
*'미나는 분노에 **치를** 떨었다' ⇒ '치를 미나는 분노에 떨었다'*
- 나. <XP>: 화제화, 뒤섞기는 가능  
*'지수가 먼저 **꼬리를** 쳤다' ⇒ '꼬리는 지수가 먼저 쳤다'*
- 다. /XP/: 내부적으로 확장 불가  
*'꼬리에 꼬리를 물다' ⇒ '긴 꼬리', '짧은 꼬리'*
- 라. !XP!: 한정사에 의해서만 수식 가능  
*'꼬리에 꼬리를 물다' ⇒ '긴 꼬리', '짧은 꼬리' ⇒ '꼬리에 꼬리는 물다'*
- 마. {...}: 숙어 내부에 나타날 수 있는 어휘 목록
- 바. 불임표(-): 문법적으로 형태가 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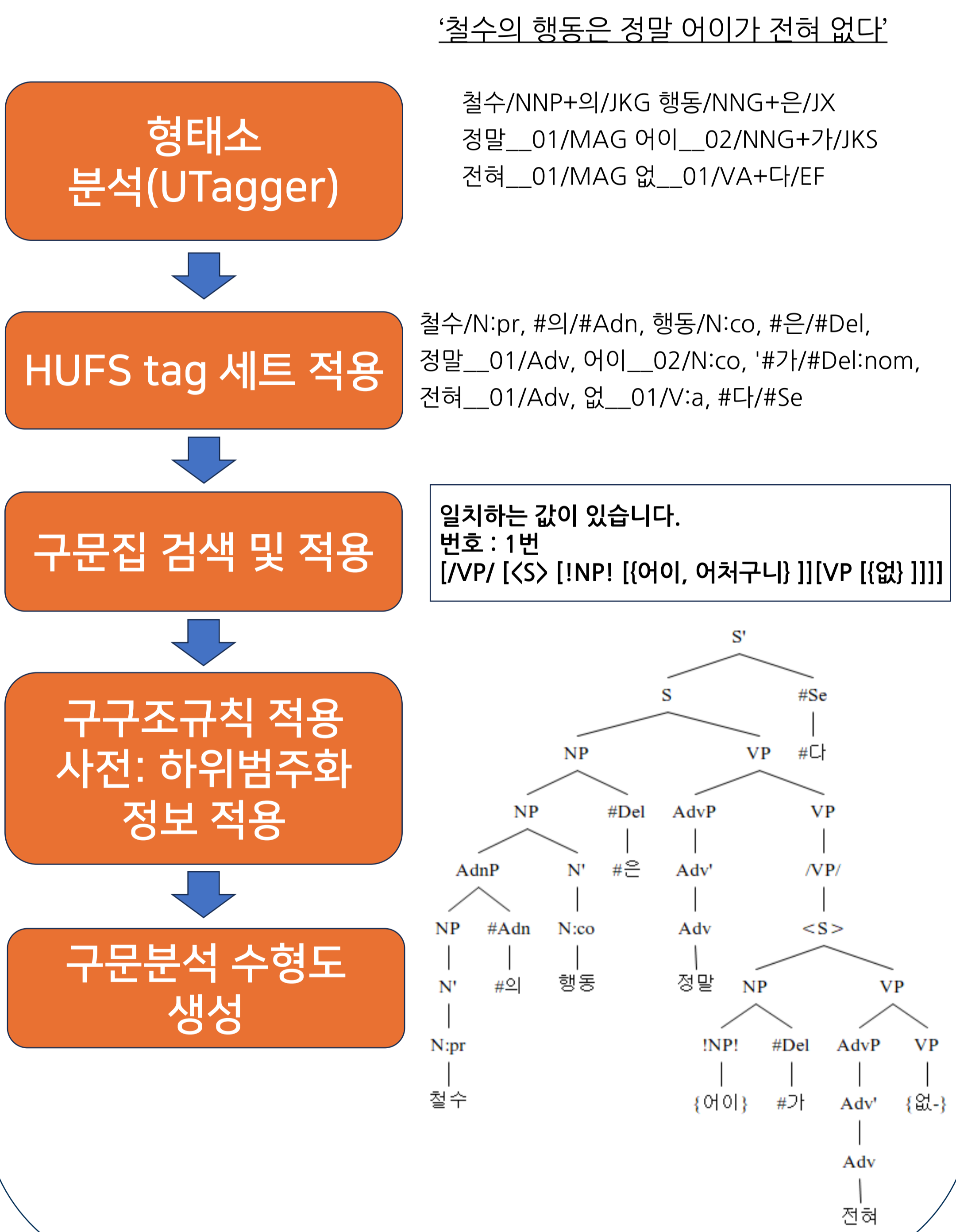


## 제안하는 한국어 파싱

### ▶ 삼분 문법 체계



### ▶ 파싱 절차



## 결론

- 본 연구에서는 숙어의 규칙성과 불규칙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.
-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구구조 문법 기반 파싱을 적용할 경우, 보충어와 부가어 정보를 포함한 문장의 전체적인 통사 구조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.
- 기존의 이분 문법 체계가 아닌, 삼분 문법(사전, 규칙, 구문집)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문장에 존재하는 불규칙적인 속성과 규칙적인 속성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.